

동구권의 에너지동향

● 헝가리

최근 동구권 개혁의 물결은 이제까지 서방세계에게 정치적 이유로 금지되어 왔던 이지역 석유시장에 대한 투자 개방의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동구권중 우리나라와 첫번째 수교국이 된 헝가리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여 온 국가로, 유럽과 미국계 석유사들의 對동구권 투자에 발판이 되고 있다. 엑슨사와 프랑스 Total社は 최근 헝가리 당국과 석유제품 판매망 투자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BP, 셸, 이탈리아의 Agip社도 새로운 합작투자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헝가리는 현재 약 4만B/D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石油생산규모를 확대키 위하여 西方企業들과 합작투자도 모색하고 있다.

헝가리의 石油수요는 19만b/d의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서방기업들의 對동구권 진출의 발판으로 인식되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西獨에 본부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서방석유사들은 특히 동구권 공략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먼저 최근 동구권국가들의 여행 자유화조치에 편승, 주유소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주 동독의 몇몇 주유소들은 西獨으로의 여행자 급증으로 휘발유의 품귀 사태도 발생되었다.

동구권지역을 휩쓸고 있는 개혁의 바람은 헝가리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추진하여 온 서방 석유사와의 합작 유인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BP, 셸, Agip社 등은 오래전에 헝가리시장에 진출하였으며, BP사는 이미 헝가리에서 11개의 주유소를 직영하고 있다. 이들 3사

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추가적인 하류부문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엑슨사는 오스트리아자회사(Esso Austria)를 통하여 대형가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Total社は 헝가리 국영석유사 OKGT(National Oil and Gas Trust)의 마케팅부문 자회사인 AFOR(Petroleum Products Trading)사와 진출을 위한 협상을 추진중이다. 특히 엑슨사는 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와 1995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다페스트-비엔나 세계박람회를 겨냥하여 주유소건설부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서방세계와의 합작투자 확대는 1990년대의 예상되는 石油수요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헝가리 정부의 새로운 시도로도 해석되고 있다. 헝가리는 이제까지 국내 석유생산이 4만B/D에 불과하여, 石油 소비량의 90% (88년 16.7만B/D)를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련의 국내사정으로 인해 수입물량 축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부족물량을 서방 석유시장으로부터 수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헝가리는 이란과 불규칙적인 바터거래로 일부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헝가리의 石油교역관련기관은 石油공급국의 다변화를 위하여 국제석유시장의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中東원유의 공급은 유고슬라비아의 Rijeka 항을 통한 파이프라인 수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이 라인을 통해 중동원유의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헝가리의 石油 상류부문 투자는 세계은행의 재정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총 214백만달러에 달하는 2

개 프로젝트에 세계은행은 약 220백만달러로 추정되는 유전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13개 석유개발장 탐사와 석유회수율 증진, 유전기술자 훈련 및 최신 탐사개발장비의 구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련의 석유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Occidental社가 OKGT社의 기술협력자로 참여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에 발표될 상기 탐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서방측 석유사와 상류부문 합작투자를 본격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지역소식에 따르면,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4개국이 에너지분야의 공동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초순 이들 4개국 외무장관들이 부다페스트에서 모임을 갖고 알제리 천연가스를 이탈리아로부터 이들 3개국에까지 연장시키는 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헝가리는 소련의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 발전전력을 이탈리아로 수출하는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폴란드

동구권에서 헝가리에 이어 2번째 수교국이된 폴란드는 에너지분야에서 石炭 생산대국이며 산업생산(NMP)

중 광공업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럽에서 소련 다음가는 연간 약 2억톤 수준의 석탄생산과 약 630억톤 규모의 석탄부존량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 및 Infrastructure 등의 노후로 향후 석탄증산 및 수출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 폴란드의 절대에너지 공급원이며 주된 외화소득원인 석탄산업의 어려움은 약 400억달러에 이르는 외채, 연간 100%를 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폴란드정부가 뛰어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가 높은 산업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의 증산추진이 폴란드 경제개혁 성패에 대한 에너지분야에서의 주된 정책목표로 평가되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 6월 자유노조의 총선승리로 1944년 공산정권 수립이후 최초로 자유노조의 마조비에츠키를 수상으로 임명해, 공산당과 聯政을 수립함으로써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개혁을 가속화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美國 등 선진국들과의 합작투자, 차관 교섭 및 교역조건 개선 등 경제협력 확대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1월 1일에 양국 수교협정서 조인과 함께 우리업체의 참여를 전제로 한 4억 5천만달러의 차관협정에 서명한

폴란드 에너지需給 現況

(단위: 백만TOE)

	1979			1984			1987			증가율 (%)	
	생산	교역	소비	생산	교역	소비	생산	교역	소비	생산	소비
• 1차에너지	125.2	-3.1	123.4	119.2	0.5	116.4	127.9	5.5	133.6	0.3	1.0
석탄	119.4	-24.8	96.5	114.6	-14.8	91.2	122.7	-17.7	105.4	0.3	1.1
石油	0.3	18.7	18.5	0.2	16.4	16.6	0.2	17.8	17.4	-4.9	-0.8
가스	4.9	3.1	8.0	3.6	4.5	8.1	4.2	5.6	9.7	-1.9	2.4
기타	0.5	-	0.5	0.7	-	0.7	0.9	-	0.9	7.6	7.6
• 최종에너지	-	-	84.9	-	-	80.3	-	-	88.5	-	-0.5
산업	-	-	39.7	-	-	33.7	-	-	34.6	-	1.7
수송	-	-	8.9	-	-	8.3	-	-	7.8	-	-1.6
기타	-	-	36.3	-	-	38.3	-	-	46.1	-	3.0
• 전력	10.1	-0.4	7.3	10.8	-0.6	7.5	12.5	1.5	8.9	2.7	2.5

〈註〉 교역(-): 수출, (+): 수입

1차 에너지소비: 재고, 가감, 전력소비: 자가소비 및 송배전손실을 가감

〈資料〉 IEA/OECD,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 1971~1987, 1989.

바 있다.

석탄은 폴란드 총에너지생산의 95%, 1차에너지 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석탄비중은 금세기중에는 그 위치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0년을 고비로 석탄생산은 담보 또는 하락의 추세로 전환되어 총에너지교역에서 수입초과의 역조현상을 확대시켜 오고 있다. 폴란드정부는 '83~'85기간 중 '경제안정화계획'을 실시하여 1981년 1억 6,300만톤까지 하락하였던 석탄생산을 '84년 이후 1억 9000만톤 생산수준으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더이상의 증산이나 수출확대에는 막대한 소요재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石油은 발틱해 연안의 생산량이 미미해 수요의 대부분을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중 소련의 국내수요 증가로 인한 對동구권 수출제한 및 외채문제 등에 의한 原油 및 석유제품 공급부

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방세계의 石油 수입은 주로 리비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에는 14.2백만톤을 수입하였는데, 소련으로부터 약 13.6백만톤, 서방세계(주로 리비아)로부터 약 60만톤을 수입하였다. 반면 국내생산은 149천톤에 불과하였다.

폴란드의 原油정제능력은 연간 약 17백만톤이며, 국내 최대정유소인 Petrochemia정유공장이 13.5(백만톤/년)이며, Gdansk Northen 정유공장이 3.5(백만톤/년)이다. 페트로케미아정유공장은 소련으로부터 송유관으로 수송되는 原油를 정제하고 있으며, 그단스크정유공장은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원유를 정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가스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이나, 국내생산은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공급 부족분은 대부분을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 석유상식 □

OPEC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약자로서 산유국 집단을 말한다.

OPEC는 지난 1960년 9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개최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등 5개국 각료회의에서 결성된 조직으로 기본목적은 메이저라고 불리는 국제석유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석유 산유국의 석유정책을 조정통일하여 집단적으로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다.

그후 OPEC는 카타르, 리비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가봉등 8개국이 추가되어 현재의 회원국 수는 모두 13개국이다.

OPEC본부는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고, 조직은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와 이사회, 사무총장, 사무국, 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OPEC의 활동은 원유가 파잉생산되었던 1960년대에

는 보잘것 없었으나, 1970년대에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통해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 이후 원유가격에 대한 지배권이 메이저로부터 OPEC로 옮겨짐에 따라 OPEC산유국들은 원유를 직접 판매하는 한편, 자체 정유공장을 건설,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또 자체유조선회사를 보유하여 일관된 석유조업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편 OAPEC(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아랍석유수출국기구)는 지난 1968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리비아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그후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이라크, 시리아, 튀니지, 이집트가 가입하여 현재 회원국 수는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은 아랍 산유국간의 경제협력 촉진에 있다.(이집트는 1979년 4월부터 자격정지된 상태)